

# 천 주 교 전 주 교 구

## CATHOLIC DIOCESE OF JEONJU

55036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Tel: 063-230-1094, Fax: 063-230-1171  
http://www.jcatholic.or.kr  
E-mail : gabe61@hanmail.net



100 Girin-dae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55036  
Tel: 82-63-230-1094, Fax: 82-63-230-1171  
E-mail : gabe61@hanmail.net

## 엄옥순(라파엘라)에 대한 파문 제재 교 령

천주교 전주교구장인 본인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는 2022년 7월 22일에 김용(소피아, \*\*\*\*년 \*\*월 \*\*일 생)외 13인으로부터 엄옥순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2022년 8월 9일에 ‘교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인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인적사항

성명(세례명): 엄옥순(라파엘라)  
소속: 전주교구 \*\* 본당  
생년월일: 1954년 \*\*월 \*\*일 생  
주소: \*\*\*\* \* \*\* \*

#### 확인 내용

1. ‘가계치유’를 주장하며 속죄예물을 요구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에 대한 신앙을 왜곡함.
2. 성사의 필요성을 부정함.
3.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신격화하여 자기를 통해야만 부활과 치유가 이뤄진다고 주장함.
4.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와 연옥에 대한 가톨릭교회 교리를 부정함.

이에 ‘교구특별조사위원회’는 엄옥순의 상기한 언행이 ‘천상적 가톨릭 신앙(교회법 제 750조 참조)’에 분명히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며(2023년 1월 13일), 전주교구 법원의 합의제 재판부는 교회법 제 751조에 해당하는 이단 행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2023년 3월 23일).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친교 안에서 건전한 신앙을 보존하고 교구공동체의 일치와 친교를 증진시켜야 하는 사목자로서 본 주교는 신앙의 일탈을 예방해야 하는 필요성, 피해 보상의 중대성 그리고 교회공동체의 일치를 위하여 ‘교구특별조사위원회’의 판단과 교구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애절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교회법 제 1364조 1항에 의거하여 이단자 엄옥순(라파엘라)에게 자동 처벌의 파문을 선고하고, 교회법 제 1331조 1항에 따라 모든 성사의 배령을 금지한다.**

본 주교는 엄옥순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자신의 범죄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용서를 청함으로써 자모이신 가톨릭교회와의 친교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사랑과 은총의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2023년 4월 12일

+ 김 순 태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